“연기적 불교 인권, 플랫폼 노동 갈등 해법”

이명호 중앙승가대 강의교수 〈선문화연구〉 31집서 발표

코로나 이후 플랫폼 전성기
플랫폼노동 갈등 새로 대두
상호의존적 이해가 선행된
불교인권 개념 도입 필요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보편화된 배달 · 상품 주문 플랫폼들. 플랫폼이 전성시대를 맞이하며 새로운 양상의 노동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디지털 플랫폼은 바야흐로 전성시대를 맞았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음식을 배달받고, 상품을 주문하며, 택시를 부른다. 이 같은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거대 플랫폼 회사는 빠지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부딪치거나 택배 · 배달업계 종사자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갈등을 겪는다. 분명 이전과는 다른 노동 갈등들이다. 이 같은 새로운 노동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기론을 기반한 불교 인권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호 중앙승가대 강의교수(경희대 종교시민문화연구소)는 학술지 〈선문화연구〉 제31집에 발표한 ‘위드 코로나 시대, 불교 기반 인권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플랫폼 노동 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 연구교수는 음식배달 플랫폼을 예로 들어 플랫폼 노동의 특징을 설명했다.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사람들은 플랫폼에 접속하면 플랫폼은 주문자와 음식점, 배달대행업체 모두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연결한다. 이렇기에 “배달노동자는 고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수당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업무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 연구교수는 이 같은 구조적 특징을 △파편화 △종속화 △관계 단절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그는 “기업이 실시간으로 노동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고용을 해야했지만,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은 콜(call)을 대기하고 있다”면서 “해당 플랫폼에 노동자들이 종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가 사라지면서 기존의 사회적 규범도 사라졌다.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나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관계 단절’로 인해 새로운 갈등 양상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권 이유로 아파트 주민과 배달 노동자들이 겪은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교수는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공공 안전과 개인 사생활이 충돌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공공 안전이 프라이버시권보다 앞선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새로운 사회와 시대 상황에 맞는 인권개념의 논의와 수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교수는 불교 기반 인권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불교 기반 인권을 △관계 연관적 인권 △구성적 인권으로 정리했다. 관계 연관적 인권은 인권적을 총체적으로, 타자 배려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구성적 인권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인권 보장 내용과 주체도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교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배달 노동자들이 처한 플랫폼 노동 조건을 이해한다면, 배달 노동자들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 조건을 이해한다면 서로의 안전권은 실재하는 인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은 지속적으로 상호 의존으로 연결된 중중무진한 사회구조로부터 도출돼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과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존재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관찰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문화연구〉 제31호에는 △향곡 혜림의 선사상- 〈향곡 선사법어〉를 중심으로(김방룡, 충남대) △한 · 중 근현대불교의 서양철학 수용과 비판(김제란, 고려대) △지론학파의 법계연기- 돈황 출토 지론문헌 S.4303을 중심으로(이상민, 고려대) △법상종의 사중철체(四重出體) 고찰(박재용,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 △〈능가경〉의 불신관(佛身觀)에 대한 고찰- 유가행 유식학파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돈각 스님, 동국대) 등이 수록됐다.

찬불음악 발전 · 전망 고찰한다

조계종 불교음악원, 4월 2일 제3회 학술세미나

한국불교 찬불음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은 4월 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찬불음악의 실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국불교음악학회 제3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제1부 세미나는 한명희 불교음악학회장의 ‘호국정신의 선양과 자비사상의 고취는 불교음악학회의 시대적 소임’ 특별기고 강연과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의 ‘찬불음악의 발전을 위한 제언’ 기조발표로 시작된다.

윤소희 학술위원장의 ‘국·시립 합창단의 연주동향과 불교음악- 조사자료와 통계분석’, 손인애 씨의 ‘한국 불교음악 교육의 현황과 그 방향성- 기독교음악 교육과의 비교를 통해’가 발표된다.

이와함께 2부에서는 찬불음악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의 제언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강형진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은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불교음악 흥법 성과와 의미’를, 이종만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대표는 ‘불교음악, 찬불가의 대중화를 위하여’를 발표한다. 박천지 불교음악원 총지휘자의 ‘전통음악적 특징을 지닌 신작 찬불가의 선율분석연구’를 봉은국악합주단의 시연과 함께 선보인다. 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종합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불교음악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음악과 이론, 연주와 학문이 함께하는 불교음악의 미래를 그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학회 ‘한국불교학’ 101집 발간

韓불교 보편 · 특수성 다뤄
4월 차기 회장 선출 공고

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가 학회지 〈한국불교학〉 제101집을 발간했다.

이번 101집 특집으로는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3-한국불교사상1 · 2’ 주제로 6편의 논문이 실렸다. 이들 논문은 지난해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들이다.

수록 논문은 △고구려 승랑의 융합적 사유-중가의와 이교의(조윤경) △유식논사 대현의 성(性)과 상(相) 이해- ‘성유식론학기’와 ‘대승기신론내의략탐기’를 중심으로(이수미) △원효 초기 심식관의 사상적 배경과 회통논리-유식과 유심 회통을 중심으로(황정일) △신라 정토신앙의 현신왕생설 재검토- ‘삼국유사’ 욱면비염불서승 · 광덕엄장 · 포천산오비구를 중심으로(법우 스님) △고려시대 법화삼매참법의 두 양상에 대한 비교 고찰-백련사계와 묘련사계의 법화참법을 중심으로(오지연) 등이다.

투고 논문으로는 △‘구사론’과 ‘성유식론’의 명(名) · 구(句) · 문(文) 논의 고찰- ‘구사론기’와 ‘술기’의 주석을 토대로(박재용) △고려 의선의 삼장법사 법호 고찰(계미향) △구하의 통도사 개혁과 그 현대 불교사적 의의(최두헌) △템플스테이의 연구동향분석-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하원 스님)가 수록됐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학회는 오는 4월 29일 열리는 춘계학술대회 폐회 직후 열리는 제1차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키로 했다.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는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가능하다. 다만 신입회원은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입년도 다음해부터 행사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원효부터 인문학 · 사찰음식까지 한번에 배운다

원효대사의 생애와 가르침, 깨달음 체험을 위한 참선, 인문학과 사찰음식까지 모든 것은 한번에 배울 수 있는 아카데미가 개설됐다. 심지어 가입비 1만 원에 모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평택 수도사가 원효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제1회 동서인문 고전강좌를 시작한다. 원효아카데미는 기독교세가 강한 평택지역에서 포교 · 전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복안이다. 대중들이 관심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운영비를 과감하게 투자해 더 많은 대중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때문에 원효아카데미 회원으로 가입하는 비용 1만 원에, 동서인문 고전강좌 강의 전부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장소는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담아낸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제1회 원효아카데미는 총 13차로 구성된다. 이평래 교수, 고영섭 교수, 백승종 교수 등 유명강사진이 포진됐다. 강좌는 4월 1일 수도사 주지 적문 스님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 개강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평택 수도사, 제1기 원효아카데미 개설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서 13차 강의로
‘동서인문 고전강좌’ 가입비 1만원 무료

2차 강의는 4월 8일 고영섭 교수의 ‘원효대사 생애와 깨달음’, 3차 강의는 4월 15일 이평래 교수의 ‘원효대사 발심수행장’, 4~5차 강의는 4월 22일과 29일 ‘원효대사의 대승기신론’, 5월 6일 6차 강의는 오명화 교수가 ‘원효대사 무애무의 이론과 실습’을 다룬다.

7차 강의부터는 사찰음식, 불교와 인문학의 만남을 주제로 한 실용강의가 이어진다. 5월 13일과 5월 20일 적문 스님이 사찰음식 강좌를 통해 깨달음체험관에 전시된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을 이끌며, 5월 27일과 6월 3일에는 백승종 교수가 ‘도시로 배우는 유럽사’를 강의한다. 백승종 교수는 강의에서 원효대사의 사상과 접목해 유럽사를 비교소개할 예정이다.

6월 10일에는 성일 스님이 이끄는 오도체험, 6월 17일에는 심복사 신성숙 선다회장의 다도체험 강의가 열린다. 이어 6월 24일 마지막 강좌는 강의 소감을 나누고 교류하는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수강일수가 전체강좌의 2/3 이상일 경우 아카데미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적문 스님은 “무료강의이지만 포교를 위한 결단으로 수준 높은 강사진을 섭외해 쉽게 재미있고 대중성있는 커리큐럼으로 구성했다”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강좌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010)2168-3169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경주박물관 ‘신라 불교조각’ 강좌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최선주)은 4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신라 불교조각’을 주제로 인문학강좌를 개최한다.

경주박물관 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신라 불교조각에 대한 8개 주제로 진행된다. 4월 6일 ‘석굴암과 불국사’를 시작으로 △경주 남산 칠불암의 불교미술 △신라의 불교조각과 중국 △밀교계 변화관음보살상 △선도산 아미타삼존불 △신라 불탑과 신중상 △선림원지 금동보살입상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이번 강연은 신라의 종교사상을 바탕으로 피어난 불교문화와 다양한 미술작품을 살펴보며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